

# “광주·전남 통합, 산업 생태계 변화 중요한 계기”

### 광주테크노파크, 행정통합 추진...산업 미래 비전 제시 지역내총생산 전국 3위 경제권·7대 신산업 벨트 육성도

광주테크노파크가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산업 발전 방향과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광주테크노파크는 지난 20일 광주 TP 본부동 대회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산업비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따라 통합 이후 변화될 산업 환경을 전망하고, 지역 기업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산업 성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에 광주·전남 기업 및 관계기관 관계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광주·전남 통합을 계기로 지역 산업 구조 재편과 초광역 경제권 기반 산업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전남 통합 관련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강기정 광주시장의 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설명 및 통합 추진 배경과 기대 효과 공유, 김운섭 광주TP 정책기획본부장의 광주전남특별시 산업비전 및 통합 이후 산업 구조 변화와 전략 산업 육성 방향 제시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을 넘어 초광역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김운섭 광주TP 정책기획본부장은 광주전남특별시 산업비전을 발표하며 통합 이후 산업 구조 변화와 전략 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통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구축하고 수도권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광역 경제권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의 기술 역량과 전남의 자원·실용 기반을 결합한 시너지 전략과 함께 AI·데이터, 에너지,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 등 7대 신산업 벨트 육성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통합 시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3위 규모의 경제권 형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함으로써 산업 성장 잠재력 또한 강조했다.

이철승 광주TP 원장직무대리는 “광주·전남 통합은 행정 효율화를 넘어 산업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광역 산업 협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TP는 앞으로도 광주·전남 통합 논의와 연계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기업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gwangnam.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2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으로 여는 산업 비전설명회'에서 산업·기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 국내 항공사 기내서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 티웨이항공도 오늘부터 동참...반입은 돼도 충전 불가

국내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폭발 사고에 적극 대응한 조치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제재를 강화하는 글로벌

항공업계의 흐름에도 발을 맞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23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다른 전

자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승객들에게 공지했다. 티웨이항공은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한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고, 기종에 따라 포트가 없는 경우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하도록 안내했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붙이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

를 한 뒤 좌석 앞주머니 등 눈에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티웨이항공의 합류로 여객편을 운항하는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게 됐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를 시범 운영한 이후 올해부터 정식 도입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지난달 22일부터 금지 조치에 동참했다.

연합뉴스

## “더 똑똑해진 빅스비”...삼성전자, 베타 버전 운영



삼성전자의 인공지능(AI) 음성비서 ‘빅스비(Bixby)’가 더 똑똑해진다.

삼성전자는 19일부터 한층 강력한 디바이스 에이전트로 진화한 빅스비 베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강력해진 빅스비는 ‘One UI (원 UI) 8.5 베타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사용자의 갤럭시 S25 시리즈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

AI 음성비서 ‘빅스비’는 이번 베타 프로그램에서 자연어를 기반으로 더욱 직관적이고 손쉬운 디바이스 제어 기능을 지원한다.

사용자가 빅스비에게 음성으로 원하는 기능이나 설정을 말하면, 빅스비가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적합한 설정이나 기능을 제안해준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폰을 보고 있는

사용자 의도 파악, 디바이스 제어하거나 기능 실행 실시간 온라인 정보에 기반한 정보 탐색 등도 가능

동안에는 화면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빅스비에게 말하면, 빅스비가 요청을 이해하고 ‘사용 중일 때 화면을 켜 채로 유지’ 설정을 즉시 활성화한다.

또 빅스비는 현재 디바이스 설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의 모든 설정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현재 자신의 디바이스 상황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전화가 올 때 벨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해결 방법 알려줘”라고 말하면, 빅스비가 현재 디바이스 설정 상태를 확인한 후, “현재 디바이스가 방해 금지 상태입니다. ‘방해 금지’ 설정을 해제할까요?”라고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번 빅스비 업데이트의 또 다른 특징은 대화 중에 모든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는 일체감 있는 경험의 제공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사용자가 궁금한 내용을 빅스비에게 물어보면, 빅스비가 실시간 웹 검색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 답변을 제공해 준다.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최원준 사장은 “삼성전자는 2024년 최초의 AI폰을 선보인 이후, 더 많은 사용자가 AI의 경험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빅스비는 갤럭시를 넘어 삼성 TV, 삼성 가전 등 삼성 에코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직관적인 디바이스 에이전트로 진화했다”며 “사용자들이 제품을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기 간 연결 경험을 한층 매끄럽게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광주상의, 기업 경영환경 개선 ‘가시적 성과’

### 지난해 각 기관에 현안 등 정책 48건 건의...19건 수용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경영환경 개선에 힘쓴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해 지역 현안 해결과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총 48건을 건의, 19건이 관계기관에 수용(일부 수용 포함)됐다고 밝혔다.

반영 현황은 수용 19건, 중장기 검토 20건, 수용 곤란 9건으로 집계됐다.

광주상의는 급변하는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경영 애로 해소와 지역의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목표로 지역 현안, 제도 개선, 기업 지원, 산업 육성 등 전 분야에 걸쳐 건의 활동을 전개했다.

분야별로는 지역 현안과 제도 개선이 각

각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 지원과 산업 육성은 각각 8건이었다.

지역 숙원사업과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제안한 건의들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상의는 주요 과제로 국가 주도의 광주 균형 이전 사업 추진과 광주 인공지능 전환(AI) 실증도시 조성사업 예산 면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가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산 추경 반영,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광주 송정역 주변, 동광주~광산C 확장 공사비 확보 등도 건의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는 수출기업 물류비 및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글로벌 통상

질서 대응책을 신속히 건의했다. 미국 관세 강화에 따른 세계 지원과 고용안정자금 지원 등 일부 과제가 수용되며 기업 부담 완화에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경영 관련 규제 혁파를 제안했다.

주 52시간제 개편과 BF 인종 제도 개선 등은 아직 수용 전이나, 현재 중장기 검토와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채화석 광주상의 상근부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 반영하기 위해 건의 활동을 이어온 결과, 다수 과제가 수용되거나 중장기 검토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과제를 지속 발굴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2026년 제14기

#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 원우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광남일보 드림리더아카데미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드십시오.

---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3월~7월 / 2학기: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충효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

■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위아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트랜스드라마> 공저자
--	--	---	---	---	--

